

시카고 근로 기준

귀하가 시카고 내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임의의 2주 동안 최소 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보복 방지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 방지

COVID-19 관련 보복으로부터 피고용인 보호

보복 방지 법령(Anti-Retaliation Ordinance)은 보장 대상인 직원이 COVID-19와 관련한 격리 명령, 의무 격리 명령 또는 공공기관의 기타 명령을 준수하고 해당 명령의 대상자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복 방지 법령은 다섯 가지 명령에 적용됩니다.

번호	명령	시행처	예시
1	COVID-19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택 대피	시장, 주지사, 시카고 공공보건국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본인이 비필수 직원이며 시행 중인 자택 대피 명령이나 긴급 행정 명령에 따라 주 바깥에서 돌아오는 즉시 집에 머물 것을 요청받은 경우
2	COVID-19 증상을 경험하거나 COVID-19 확진으로 인한 자택 격리	치료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발열 등의 COVID-19 증상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집에 있으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보장 대상 직원에 대해 시행된 자가격리 명령	치료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로부터 일정 기간 집에 있으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4	보장 대상 직원에 대해 시행된 의무 격리 명령	치료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COVID-19를 앓거나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의사로부터 집에 있으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5	병원 또는 기타 밀집 시설 관련 보건 집행위원 (Commissioner of Health)이 시행한 명령 준수	보건 집행위원	귀하가 병원, 양로원, 기타 밀집 시설에서 근무 중이며 고용주가 특정 보건 절차의 시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항의 제출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CHI 311 앱을 사용합니다.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항의 양식을 제출하세요.

www.chicago.gov/laborstandards



자세한 내용은 www.chicago.gov/laborstandards에 방문하세요. 근로 기준 사무소(Office of Labor Standards)에 문의하려면 bacplaborstandards@cityofchicago.org에 방문하거나 312-744-2211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0년 7월 7일